

지역 매아리

'정읍마을 만들기 시민창안대회' 참여 지역공동체 31일까지 공모

정읍시가 활기차고 살기 좋은 정읍 만들기 프로젝트인 '2018 정읍마을 만들기 시민창안대회'에 참여할 지역공동체를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미을공동체와 창업공동체 등 2개 분야이다. 지난 10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마감은 이달 31일까지다. 접수 장소는 시청 공동체과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이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민창안대회는 시민들과 공동체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실행 단계로 진행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즉, 단계별 공동체 육성 프로젝트라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협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다.

씨앗단계인 청인학교를 거쳐 300만원 이 지원되는 뿌리단계, 3000만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출기단계로 진행된다. 이어 열매단계에서는 미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정읍시민창안대회는 그동안 뿌리단계 185개, 출기단계 44개, 열매단계 29개를 육성했다.

이들 공동체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일부 공동체의 경우 턱월한 공동체성과 사업 추진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과 또한 돌보여 2015년 미을 만들기 분야 전국 평가에서 시가 대통령상을 받았고 행정자치부 주최 공동체 글로벌 한미당에서 송죽마을이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대산면, 경로당 47개소 단열 에어캡 부착사업 추진

고창군 대산면이 면내 경로당 47개소에 단열 에어캡(일명 빽빽이) 부착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과 온정을 나눴다.

경로당의 창문과 출입문 등에 부착되는 단열 에어캡 대상협동(조합장 박윤규)에서 지원했으며, 대산면 직원들은 조례를 편성해 담당 경로당에 직접 시공하며 마을 어르신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열 에어캡을 창문에 부착하면 열손실을 막아 뛰어난 보온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방비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임재남 대신면장은 '어르신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보람된 시간이었으며, 어르신들이 올 겨울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이달부터 호국보훈수당 1만원 인상

정읍시, 신청자 한해 지급... 생활보조수당·보훈예우수당도 신설

정읍시가 올 1월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했다.

시는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을 지원, 보훈기록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¹와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²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근거해 이달부터 호국보훈수당을 종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한다. 관련해 시는 전년 예산 3억1710만원 보다 크게 늘어난 11억 103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자는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둘 이상 유공자 또는 미망인, 보국 수훈자 또는 미망인 그리고 625 전몰 군경, 유자녀 중에서 보훈 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1인)이다.

보훈 급여자와 기초 수급자는 제외

된다.

시는 현재 이달 현재 매월 1200여명에게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정읍시에 거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지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유족과 가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액은 월10만원이다. 단, 신청 주제로 신청한 시점에 한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보훈예우수당도 신설됐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정읍에 거

주하고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⁴에서 정한 상이 등급별 7급에 해당되는 월 보상금 지급액 미만의 금액을 지원받는 사람이다. 유족과 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훈예우수당 또한 신청주의로, 신청한 시점에 한해 신청한 달부터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생활보조수당 신설에 따라 수급자는 수급비와 생활보조수당까지 받을 수 있게 됐고 보훈예우수당 신설로 상이등급 7급 기준 국가보훈수당을 받은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로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등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발 빠른 제설로 시민 불편 최소화 주력

정읍시 공무원, 연 이틀 제설작업 '구슬땀'

정읍에 지난 9일부터 11일 오전 7시까지 18.8m의 많은 눈이 내린데

다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 공무원들이 연 이틀 신속

한 제설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산하 전 직원 1400여명이 오전 9시부터 담당구역별로에서 낙지대 등 장비를 이용해 눈을 치웠다.

특히 김용만 시장은 대상지에 비롯한 건설과 직원과 주변 상가 주인 등 30여명은 새일로 제일은행 3

거리에서 전북은행 정읍지점에 이르는 300여m에서 대대적인 제설작업을 펼쳤다.

한편 시는 계속해서 많은 눈이 내림에 따라 취약구간인 추량지와 구절재, 입암발재 등 고갯길을 비롯 63개 노선 408km에 염화물실포 기와 장축용 덤프트럭을 투입하는 등 발 빠른 제설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주민 공무원 한마음 제설작업 펼쳐

최근 23cm의 폭설로 인해 주민들

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도시리자 부안군 공무원을 비롯하여 마을트래터 보유 주민 등 1,000여명이 함께 자원봉사 제설작업을 펼쳐 안전사고 발생에 민전을 기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폭설이 내리자 도로제설작업에 참여한 주민은 군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마을 안길 및 진입로에 대해 제설작업을 펼쳤으며 부안군 공무원들도 인도면 제설 및 다중집집장소, 주요 간선도로 등 눈치 우기 작업을 함께 하면서 내 집·내 점포 앞 눈치 우기

운동 흥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30여 명으로 구성된 기동제설반은 눈이 내리는 날이면 매일 새벽 3시에 출동해 15톤 덤프트럭 및 포크레인 등 중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출근 전에 제설작업을 마쳐 출근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자원봉사로 제설작업에 동행해 주민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면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한다

고창군, 조림·숲가꾸기 사업 20억원 투입

고창군이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올해 총 20억원을 들여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조림 85㏊, 어린나무가꾸기 60㏊, 조림지 가꾸기 500㏊, 큰나무가꾸기 200㏊ 등 총 845㏊이다.

조림사업은 산림경관 조성 및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 벌채지 등에 편백, 백합, 소나무

등의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특히 지난해에 공모 선정된 삼원면 연화리 화단마을의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³이 추진될 계획이어서 기대가 크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를 통해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기초생활거점지구 발전협의회 첫 회의 열어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사업(이하 '농산어촌 공모사업')과 관련, 지난 9일 시청 종합의실에서 기초 생활거점지구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관련해 시는 지난해 12월 농산어촌 공모사업 기초생활거점지구로 입선했고 철보면을 선정한 바 있다.

또 1월말까지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역량강화 활동 워크숍을 갖고 지역 개발 전문가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공모 준비에총력을 기울일

첫 회의에서는 지역 추진위원회와 주민, 담당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주도로 작성한 예비사업계획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시는 발전협의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주민과 컨설팅업체, 행정과의 협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1월말까지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역량강화 활동 워크숍을 갖고 지역 주민 대표, 관련 기관, 중간지원 조직과 행정이 참여하고 있다. 당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은 국비를 70% 확보해 농촌지역 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그간 21개 지구에 640억원을 투자하여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마을공동체 사업에 힘써온 민족 더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정읍시민이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하서파출소,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내실화' 홍보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 하서파출소(소장 함영민)는 하서면 이장단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지난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 및 '순찰요원장소 일몰제'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하서파출소는 관내 면사무소, 농협,

우체국, 미을회관 등에 진출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순찰 요청장소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함영민 파출소장은 "분기별로 순찰요원장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순찰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이옥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빵주를 선택했습니다.



KOREAN TRADITIONAL WINE
GANGSANMYEONGJU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빵주와 함께 오디주의 칠맛을 느껴보세요.

오늘은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너너히 넣고 점심스레 빛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깊끔함을 한껏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벼산반도 청정해역의 해물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달도와 짙이 아주 다크 턱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양 수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읍=김대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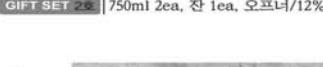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6호 | 500ml 2ea/12%, 복분자 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호 | 375ml 2ea/13%



GIFT SET 8호